

더 던 매거진

그리스도의 임재를 알리는 선구자



더 던 매거진

2025년 5월

목차

추천 기사	2
더 이상 저주 없음.....	2
성경 공부	27
다윗의 희생.....	27
솔로몬, 성전 봉헌	32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37
언약 갱신	42

성경에서 성경 구절을 찾아보세요!

더 이상 저주 없음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으니 고통스러운
수고로 평생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으리라."***

창세기 3:17

하나님의 신성한 율법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 아버지 아담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두 번째 측면에는 지구와 인간의 환경에 내려진 저주도 포함됩니다. 이는 인류의 건강과 활력이 전반적으로 쇠퇴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이는 결국 무덤에서 끝납니다.

성경 기록에서 우리는 이 심판의 첫 부분을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자유롭게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2:15-17

죽어가는 과정

이 선언에는 성경 기록에도 드러나 있는 중요한
차원이 있으며, 이 문제를 올바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지시와 관련하여 하나님은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죄를 지으면 즉시 죽는 과정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아담이 이 문장이 선고된 바로 그 날 죽지 않고
930년 동안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록에는
"아담은 930년을 살다가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5:5). 하나님의 계산에 따르면 하루는 천 년에 해당하며, 그 동안 아담은 죽어가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세요: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8). 따라서 아담은 하나님의 시간 측정 방식에 따라 하루라는 기간 내에 죽었습니다.

저주받은 지구

죄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두 번째 측면은 땅 자체와 아담과 그의 후손이 생존을 위해 식량을 생산해야 하는 바로 그 땅에 관한 것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명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므로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으니 너는 평생 동안 고통스러운 수고로 그것을 먹으리라. 그것은 너를 위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너는 밭의 식물을

먹을 것이다. 너희는 흠에서 취함을 입었으므로
흠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흠이니 흠으로 돌아갈 것이다."
창세기 3:17-19

슬픔 속에서

우리의 첫 번째 부모가 생전에 겪었던 슬픔의 깊이는
죽음으로 끝났을 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슬픔'이라는 단어는 걱정, 슬퍼하다, 고통스럽다는
뜻으로, 어머니 이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하여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내가 너의 해산의
고통을 매우 심하게 할 것이며, 너는 고통스러운
진통으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너는 네 남편을 원하게
될 것이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창세기 3:16).
시편 기자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칠십 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심지어 80세까지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세월도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가
곧 사라지고 우리는 날아가 버립니다." 시편 90:10

다윗의 애가

시편 기자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죄와 죽음, 저주받은 땅의 끔찍한 결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시편 중 한 구절에서 "여호와여, 진노로 나를 꾸짖거나 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당신의 화살이 나를 깊이 찔렀고 당신의 타격이 나를 짓밟고 있습니다. 주님의 진노 때문에 제 온몸이 아프고 제 죄 때문에 건강이 망가졌습니다. 죄책감이 저를 압도하고 견디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나의 어리석은 죄로 인해 상처가 끓고 악취가 납니다. 나는 몸을 구부리고 고통에 시달립니다. 하루 종일 슬픔으로 가득 찬 채 걸어 다닙니다. 내 안에서 격렬한 열이 치솟고 건강이 무너져 내립니다. 나는 지치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고뇌하는 마음에서 신음소리가

나옵니다. 주님, 주님은 제가 무엇을 갈망하는지 아시고 저의 모든 한숨을 들으십니다." 시편 38:1-9

오염된 지구

선지자 이사야는 저주받은 땅과 죄 많은 인간이 땅을 오염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는 "보세요! 주님께서 땅을 멸망시키고 광활한 황무지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는 땅의 표면을 황폐화시키고 사람들을 흠어 버립니다. 제사장과 백성, 하인과 주인, 하녀와 여주인, 구매자와 판매자, 대부자와 차용자, 은행가와 채무자,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땅은 완전히 비워지고 약탈당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슬퍼하고 마르고, 땅은 황폐해지고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조차도 사라집니다. 땅은 백성들의 죄로 인해 고통을 겪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왜곡하고 그분의 법을 어기고 그분의 영원한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집어삼킵니다. 그 백성들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들은 불로 멸망하고 소수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사야 24:1-6

전염병

성서 역사가이자 복음서 작가인 누가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묘사할 때 "땅이 황폐해지고 시들어 버린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특정 시기를 지상에 큰 환난이 닥칠 때로 특정하고 구분했습니다. (다니엘 12:1). 이것은 이 "현재의 악한 세상"의 마지막 해에 세상 사람들에게 닥칠 것으로 예언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4).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의 이 시기에 살고 있으며(), 성경 예언에서 우리 시대를 표시하는 전례 없는 사건의 증인입니다. 누가는 "큰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땅에 기근과 재앙이 있을 것이며 하늘에서 무서운 일과 큰 기적의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누가복음 21:11

인간의 끊임없는 투쟁

인류는 역사를 통틀어 온갖 역경에 맞서 싸워야 했으며, 이러한 여러 요인 중 일부는 여전히 인류의 생명을 조기에 잃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는 역병, 전염병, 질병에서 비롯되었으며, 곤충이나 설치류 등 다양한 매개체가 이를 옮겼습니다. 인류 자체도 질병, 바이러스 및 다양한 형태의 질병이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인류는 가뭄, 홍수, 폭한과 같은 악천후로 인해 기근과 기아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의 식량 공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곤충이나 잡초의 침입으로 인한 농작물 손실도 발생했습니다. 이 외에도 인류의 수많은 적과 맞서 싸우는 일은 끝이 없습니다.

지난 한 세기 반 동안 지구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인류가 직면한 역경은 더욱 통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과거에는 농장의 규모가 작아 해충의 침입이 더 제한적이고 통제하기 쉬웠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농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해충, 질병 및 파괴적인 기상 이변이 많은 농경지에 퍼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학적 제어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80억 명이 넘는 인구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일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인류는 여러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해충 방제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해충과 질병으로부터 식량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살충제가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초제는 또한 아담의 세대에 도입되어 계속해서 식량을 침범하고 생산을 방해하는 "가시와 엉겅퀴"를 방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저주받은 지구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살충제의 사용은 농작물 생산량을 증가시켰고 많은 경우 더 높은 품질의 농산물을 보장했습니다. 하지만 살충제는 해충을 죽이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독성 화학 물질이기도 하며, 일부 제품은 사람이 섭취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동물성 식품 생산의 경우, 성장을 촉진하고 사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항생제 및 호르몬과 같은 약물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의 잔류물은 인간에게도 유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살충제뿐만 아니라 동물용 항생제 및 호르몬에 대한 노출로 인한 피해 수준은 많이 섭취할수록 위험성이 커진다는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의 도전 과제

문제는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식품 공급과 불필요한 화학물질 노출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한도는 안전에 대한 한계가 좁으며, 과거의 경험에 따르면 처음에는 사람이 섭취하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살충제가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화학 물질인 "DDT"는 환경 잔류성과 체지방에 축적되는 능력 때문에 그러한 역사적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1972년, 나머지 국가에서는 2004년에 DDT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항생제는 박테리아를 죽이기 위해 고안된 약물이지만 동물 사료 생산에 사용되어 성장을 촉진하고 필요한 사료의 양을 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약물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 균주가 번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육류 제품에 남아있는 항생제 잔류량을 줄이려면 항생제 관리가 필요합니다.

최근 발생한 H5N1 "조류 독감" 바이러스는 지난 3년 동안 가금류 산업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미국에서만 2022년 이후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1억 4,800만 마리의 닭이 안락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행히도 사람 사이에서 보고된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바이러스는 사람 간에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란 및 기타 관련 식품의 부족으로 인해 모두 영향을 받았으며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화학 물질, 호르몬 및 우리 조상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기타 농업 발전()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해충, 잡초 및 질병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와

죽음으로 인해 지구에 내려진 저주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땅과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 저주를 받았으며, 그 저주의 현실은 우리 시대에 더욱 분명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것은 너희를 위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희는 밭의 채소를 먹을 것이다. 너희는 흙에서 취함을 입었으므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16,17

자연 제어

과학자들 중 일부는 특정 종의 유용한 곤충이나 새가 해로운 곤충이나 새를 방제하고 식량 작물을 파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충의 침입을 막기 위해 천연 곤충

방제 및 유기농 해충 방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살충제로 해충을 죽이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자연 방제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방제는 지역에서 식하는 해로운 침입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방제 종은 침입 종 간의 경쟁을 줄이기 위해 도입됩니다. 그러나 도입된 방제종이 항상 의도한 해충 개체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일 종 또는 소수의 종에 국한되지 않는 방제제는 항상 좋은 생물학적 방제제가 아니며, 그 자체가 침입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 수많은 사례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사례는 더 유익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사마귀는 매일 엄청난 양의 해충을 잡아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당벌레는 과일나무를 자주 공격하는 진드기와 진딧물도 잡아먹습니다. 기생충, 포식자, 병원균 또는 경쟁자 같은 천적 중 일부를 식량 작물에 도입하는 것만큼 자연적인 방법을 찾아서 사용하는 것이 때때로 쉬울 수 있습니다. 다른 유용한 포식자로는 해충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는 거미도 있습니다.

딜이나 바질과 같은 일부 식물은 원치 않는 벌레를 쫓아내는 반면, 나비와 같은 유용한 곤충을 유인하는 식물도 있습니다. 병에 걸린 식물은 건강한 식물보다 원치 않는 해충을 더 쉽게 유인합니다. 따라서 유기질 비료, 뿌리 덮개, 퇴비로 토양을 조성하여 식물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물 순환을 도입하는 것도 또 다른 긍정적인 방법입니다. 같은 땅에 매년 다른 품종의 작물을 심으면 특정 해충과 잡초의 번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연구와 과학적 실험을 통해 생물학적 방제는 향후 전 세계 식량 작물 생산에서 해충의 침입을 줄이는 데 잠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방제는 오늘날 더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살충제와 제초제의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혜 선언문

인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충, 잡초, 해충, 농작물 및 동물 질병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제법이나 방법을 발명하거나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식량을 재배하는 모든 곳에서 문제가 너무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원치 않는 종을 잡아먹는 많은 종의 유용한 새와 곤충이 없었다면 오래 전에 지구는 곤충과 잡초로 완전히 넘쳐났을 것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것이 제한된 범위에서 침입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모든 육체가 완전히 황폐화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지혜와 통제하시는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인도가 없었다면 모든 육체는 오래 전에 멸망했을 것이며, 죄로 병들고 죽어가는 인류의 완전성에 대한 희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구를 창조하셨고, 지구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말에서 우리는 "세대는 오고 세대는 가지만 땅은 영원히 남는다"는 구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 1:4).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본적인 물리적 법칙과 원리에 대한 제한된 통찰력을 주셨지만 모든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역사는 반복될 뿐입니다. 모든 것은 전에 다 해본 적이 있습니다.

태양 아래서 진정으로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여기 새로운 것이 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오래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9,10절

신의 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은 저주나 축복을 가져오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시절의 삶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파라오에 대한 속박은 인류가 사탄 아래 죄와 죽음에 속박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 인류가 사망의 형벌에서 해방되는 것을 묘사합니다. 로마서 5:18,19; 히브리서 9:12,15; 디모데전서 2:5,6

고대 이스라엘의 경우,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이집트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먼저 물이 피로 변한 다음 개구리가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파리, 그리고 소와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는 전염병인 머레인의 재앙이 왔습니다. 그다음에는 종기와 폭풍우와 어둠을 동반한 우박이 내렸습니다.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었으며, 하나님만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8:22,23; 9:4-7). 시편 기자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개괄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시편 78:44-51

저주 되돌리기

이사야 선지자는 온 인류에게 축복을 가져다주실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사막과 메마른 땅이 기뻐할 것이며 광야가 기뻐하며 꽃을

피울 것입니다. 크로커스처럼 꽃을 피우며 크게 기뻐하고 기쁨을 외칠 것입니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찬란함이 그곳에 주어질 것이며, 그들은 주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찬란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35:1,2). 이 놀라운 장면을 상징적인 언어로 묘사할 때 이사야는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기쁨으로 노래할 것이다! 광야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시냇물이 황무지에 물을 줄 것입니다. 메마른 땅이 웅덩이가 되고 샘물이 솟아나 목마른 땅을 만족시킬 것입니다. 사막 자칼이 살던 곳에는 습지 풀과 갈대, 덤불이 번성할 것입니다." 6,7절

시편 기자는 현 시대의 그리스도와 그분의 충실한 추종자들이 통치하는 이 미래 시대와 관련하여 "주님은 땅을 돌보시고 물을 주셔서 풍성하고 비옥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강에는 물이 풍부하여 풍성한 곡식을 수확할 수 있는데, 이는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쟁기질한 땅을 비로 적셔 흙덩이를 녹이고
산등성이를 평평하게 하십니다. 소나기로 땅을
부드럽게 하시고 풍성한 농작물을 축복하십니다.
풍성한 수확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험난한 길도
풍요로움으로 넘치게 하십니다. 광야의 초원은
무성한 목초지가 되고, 언덕에는 기쁨으로 꽃이
피어납니다. 초원은 양떼로 가득하고 계곡은
곡식으로 용단을 깔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치며 노래합니다!" 시편 65:9-13

평화의 언약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한 대로 더 큰 '다윗', 즉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충실한 추종자들을 통해 백성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으실 것입니다. "내가 한 목자, 곧 내 종 다윗을 그들
위에 세울 것이다. 그는 그들을 먹이고 목자가 될

것입니다. 나 주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내 백성 가운데서 왕이 될 것이다. 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과 평화의 언약을 맺고
이 땅에서 위험한 짐승들을 쫓아내겠다. 그러면
백성은 아무리 거친 곳에서도 안전하게 야영하고
숲에서 두려움 없이 잠을 잘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언덕 주변의 집을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적절한 계절에 나는 그들에게 필요한
소나기를 보낼 것입니다. 축복의 소나기가 내릴
것입니다. 내 백성의 과수원과 들판은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이며 모두가 안전하게 살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노예 사슬을 끊고 그들을 노예로 삼은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구출하면,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34:23-27

더 이상 저주 없음

순종하는 모든 인류는 완전한 지구로 회복될 것이며, 우리의 첫 부모가 죄에 빠진 이후로 존재해 온 저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세상과 사람들의 일에 대한 힘과 권위로 세워질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 기자는 인간 가족에 대한 이 놀라운 희망을 말하는 하나님의 환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큰 거리 한가운데로 흐르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강 양쪽에는 열두 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서 있었고, 매달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잎은 열방의 치유를 위한 것입니다.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도시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1-3

더 이상 슬픔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계획과 목적은 순종하는 그의 인간 피조물을 회복되고 완전한 지상 가정에서 완전한 삶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당시의 긴 시간의 흐름을 내려다보며 이 놀라운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대속을 받은 자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기쁨으로 면류관을 쓰고 노래하며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슬픔과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1:11

요한 계시록 기자 역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가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애통한 것이 없으리니 옛 질서가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 믿을 만하고 진실하니 이것을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목마른 자에게 내가 생명수 샘물에서 값없이 물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1:4-6

다윗의 희생

핵심 구절: "그러나 다윗 왕이 아라우나에게
대답하기를, 아니, 나는 그것을 제값에 사겠다고
고집합니다. 나는 당신의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무 값도 들이지 않은
번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역대하 21:24

선택한 성구:

역대하 21:14-30

주님은 다윗에 대해 그가 자신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3:14,
사도행전 13:22). 이는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하며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소서. 내 안에 충성스러운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10). 그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마음이 항상 깨끗한 것은 아니며,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때때로 잘못된 영이 나타나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 동정하지 않았고, 자신이 깨끗해지고 '올바른 영'이 내 안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회개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예는 그가 군대 대장 요압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하여 주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그때 주님은 다윗의 선견자, 즉 선지자인 갓에게 말씀하시며 이 범죄에 대한 징벌로

3년 기근, 3개월 적에게 멸망, 3일 전염병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다윗에게 지시하십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다윗은 겸손한 마음으로 선택을 거부하고 "여호와와 인자하심이 크시니" 이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기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무엘하 24:2-4; 역대상 21:1-13

하나님께서서는 3일 동안 전염병 징벌을 내리셨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스라엘의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천사를 보내셨지만 곧 천사에게 "그만! 그만하라! 그 순간 여호와와 천사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청하여 죄를 지은 것은 백성이 아니라 자신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자신에게 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14-17절

하나님께서서는 천사를 통해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오르난은 먼저 "천사를 보았고" 다윗이 도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타작마당에 대해 "제값"을 지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타작마당을 산 후, 그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은 "번제단 위에 불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러한 제사를 바탕으로 주님은 재앙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18-28절

다윗의 주님에 대한 헌신의 진실성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선물로 받거나 더 적은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정가로 사서 주님께 제물로 드리겠다고 고집하는 그의 모습에서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그는 아무 값도 들지 않는 번제를 주님께 드리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24절).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좋은 교훈입니다. 어차피 필요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가 없는 것만 주님을 위해 희생한다면, 우리는 그분께 진정한 헌신의 증거를 거의 또는 전혀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기록에 대한 마지막 참고 사항으로, 다윗이 구입한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훗날 솔로몬이 "여호와의 집"인 성전을 건축한 곳입니다. 역대하 3:1

솔로몬, 성전 봉헌

핵심 구절: "제사장들은 여호와와 영광스러운
임재가 성전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여호와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

역대하 7:2

선택한 성구:

역대하 7:1-7,11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예수님과 그의 "작은 무리"로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현재 복음 시대에 건축하고 계신 더 크고 영적인 성전을 예시한 것입니다. (눅 12:32). 바울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16,17, 12:27). 우리 주

예수님은 이 하늘 성전의 "기초"이십니다(고린도전서 3:11).

솔로몬 성전의 일부로 선택된 각 문자 그대로의 돌은 성전의 최종 위치에 정확히 맞도록 미리 잘라내고, 모양을 만들고, 연마하는 등 "가져오기 전에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완성하기 위해 모든 돌()을 조립할 때가 되었을 때 망치나 끌이 필요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6:1-7).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봉헌된 각 사람을 어떻게 준비하시고, 발전시키시고, 증명하시느지를 예표합니다.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은 문자 그대로 돌을 깎고 다듬는 과정을 통해 묘사되며,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가 미래의 사역을 위해 준비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여러분도 산 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입니다. (베드로전서 2:5-9). 하늘에 있는 이 영적

성전은 현재의 복음 시대가 끝날 무렵, '작은 무리'의 마지막 일원이 죽도록 충성할 때 곧 완성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0

성전이 완공된 후 솔로몬은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충실한 추종자들을 가리키는 언약궤를 성전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레위인, 음악가, 노래하는 자들이 "이 말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의 신실한 사랑은 영원하도다!" 역대하 5:1-13

그런 다음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헌신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역대하 6:12-42).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와 제물을 삼켰고", 이는 하나님의 응답을 나타내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집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은 불이 내려오고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성전을 가득 채우는 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는 선하시다! 그분의 신실한 사랑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역대하 7:1-3

솔로몬의 성전은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되어야 했습니다. (마가복음 11:17, 이사야 56:7). 이것은 메시아 시대에 영적 성전이 완성되고 영광을 받은 후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할 것임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영적 성전 안에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영적 성전에 가까이 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곧 다가올 이 때를 언급하며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가 누구인지 계시하실 미래의 그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로마서 8:19

그러면 모든 인류는 완성된 영적 성전인 "몸의 머리, 교회"인 그리스도 예수와 완성된 교회인 "신부" 반열을 통해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초대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17, 골로새서 1:18). "그리스도" 반을 통해 인류는 아버지께 다가갈 것이며, 그들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은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2:10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핵심 구절: "그때 모든 백성이 큰 소리를 지르며
주님을 찬양하니, 이는 주님의 성전의 기초가 놓였기
때문이었다."

에스라 3:11

선택한 성구:

에스라 3:1-6,10-13

에스라서에 기록된 사건은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70년의
세월이 끝날 무렵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 천하를 주셨다고
선언하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임명했습니다. 그 결과 고레스는 유대인 포로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에스라 1:1-3

귀환한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릴 제단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귀환 두 번째 해에는 "성전의 기초"가 세워졌습니다.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니 이는
그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영원히 지속됨이라 ... 여호와의 집의 기초가 놓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라 3:2-6,8-11

일부는 기쁨의 소리로, 일부는 울부짖는 소리로
불협화음을 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은 기쁨을 외쳤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솔로몬의 웅장한 성전을 머릿속에
그리는 사람들은 현재의 성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12,13절).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미래를 위해
기뻐해야 할 때 과거를 그리워하며 울거나 낙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권고는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13). 사실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모든 희망의 결실에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우리는 과거의 죄나 결점으로부터 얻은 교훈, 즉
"주님의 징계"와 그러한 경험을 통해 올바르게
"행사"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5-11). 그러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옹호자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죄를 개인적으로 속죄하신 분"이시므로, 이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애도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모든 흠과 실수를 덮어줍니다. (요한일서 2:1,2;

1:7-10).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 계속 목표를 추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14

에스라서에 기록된 이 장면은 어떤 면에서는 아마겟돈이 끝난 직후 세상에서 일어날 상황과 사건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때 하나님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분께로 향하여 이 땅의 새로운 조건과 마련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모든 인류는 옛날 이스라엘이 영적 성전을 통해 주님께 다가갔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 다가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1-4

이 땅의 인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선하심과 자비, 사랑에 대해 찬양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시편 136:1).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의 집 산이 지상에서 가장 높은 곳, 즉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다른 언덕들보다 더 높이 올라갈 것이며, 전 세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곳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하길, 주님의 산 ,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고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우리는 그분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여호와와의
가르침이 시온에서 나오고 그분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2-4

언약 갱신

**핵심 구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함께 약속합니다."
-느헤미야 10:39**

**선택한 성구:
느헤미야 10:28-39**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는 재위 7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 서기관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법령을 내렸어요. 또한 아닥사스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과 금을 제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필요한 제물을 구입하고 하나님의 집에 필요한

다른 모든 것을 조달할 수 있도록 명령했습니다.
에스라 7:1-27

13년 후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던 유대인
남자들 중 일부가 바벨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왕의 신임을 받는 시종이었던 유대인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아 있는 폐허를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느헤미야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죄()와 부족함을 고백하고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때 왕
앞에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및
2장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3-6장). 나중에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남녀 회중에게

읽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레위인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분명하게" 설명하여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느헤미야 8:1-8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다.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 "여호와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 9,10절

그 후 백성들은 주님을 경배하고 죄를 고백하며 이스라엘 역사에 걸친 과거의 범죄를 이야기했습니다. (느헤미야 9:1-37). 그들은 하나님과 "확실한 언약을 맺겠다"고 서약하고, 그 언약을 쓰고 인봉했습니다. (38절). 그들은 또한 " 모든 명령과 규정과 법령을 주의 깊게 준수"하고, 주님을 위한 모든

헌금에 기여하며, 그들의 하나님을 "집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느헤미야 10:28-39

느헤미야서 10장에 기록된 이 장면은 하나님 나라의 지상 단계에서 일어날 일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 때 인류는 대적의 땅, 즉 죽음이라는 큰 적으로부터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슬픔 대신 위로와 기쁨을 주겠다 ...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울지 말고 눈물을 흘리지 말라, 너희가 행한 일에 보상을 받을 것이니,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들은 적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예레미야 31:13,16; 고린도전서 15:26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과 새 언약을 맺을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내가 그들을 사랑했지만 그들은 그 언약을 어겼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 과 맺을 새 언약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 지시를 그들의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웃에게 가르칠 필요도 없고, 친척에게 '너희는 주님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든 사람에게 ... 내가 그들의 악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예레미야 31:31-34). 나머지 인류가 무덤에서 나올 때, 그들도 이 언약에 따라 주님께 돌아올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사야 56:6-8; 2:2-4